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극복 방향: 사회학적 고찰

발제 요지

지난 12.3 계엄선포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정치적 혼란은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현상이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제삼세계의 모델로 보아 왔던 사람들도 모두 실망을 하고 한국 정치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였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여 보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너무 주제넘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불허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정치현상을 정치문제 전공자도 아닌 내가,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나와서 한국정치에 대한 지식도 짧은 내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자괴심이 들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미래포럼의 강의초청을 깊은 생각 없이 수락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고, 그래서 고안해낸 생각은 내가 무슨 완전히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에 관해 중요한 이슈를 몇 개 잡아서 같이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주요 의제

1. 내가 한국정치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은 이제 경제나 사회, 문화면에서 당당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정치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번 계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정치는 정말 '국격'에 맞지 않게 후진적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가가 내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계엄선포를 내린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당이라고 29개의 탄핵을 발의하고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게 한 야당 당수나, 또 국회의 탄핵결정 이후 각 당 정치인들이 국가에 닥친 위기는 도외시한 채 당리 당락에만 사로잡혀서 매일 싸움질만 하던 모습 등은 도저히 한국의 세계적인 국격에 맞지 않은 **후진적 정치** 양상을 보여준다. 사회와 정치의 이런 큰 불균형을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

2.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한국의 **정치문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국정을 이끄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경청할 자세가 필요하며, 내 쪽에 더 힘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 자제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을 보면 이런 대화, 협상, 자제의 미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정치인에게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것 같다. 대다수 정치인의 몸에 밴 이런 기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문화가 생겼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그렇게 빨리 발전을 했음에도 왜 이 면에서는 발전이 되지 않았나? 과연 이 정치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3. 이번 계엄사태 동안에 나타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대치는 한국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한국사회가 양극화되었는가? 양극화는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감성적으로도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의 밑바닥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 경제적 양극화가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로 발달 하였나? 그리고 이 양극화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4.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계급구조**의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이 얘기되는 중산층의 몰락과 노동계층의 불안한 상태는 정치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근본적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고, 현재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좌나 우로 쏠림 없이 중도적인 정치성향을 견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현재 중산층 인구의 다수가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산층 내에서도 부유층과 중하층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중산층의 내부 분화는 이 계층의 정치적 역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일까?

5. 국가의 과도한 권력을 통제하고 국정을 민의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체가 바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체이다. 여기 미래포럼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건전한 정치문화를 가르치고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즉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확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의 발달이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할지가 나로서는 궁금하다. 내 생각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양극화하는 사회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세우는 일일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 선’(common good), 즉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해근

하와이 대학 명예교수 사회학

미래포럼 토의 요지 (구해근)

1. 선진국이 된 한국사회의 후진적 정치 - 왜?
2. 국가-사회의 관계: strong state vs weak society
contentious society
3. 정치문화의 특징: 정치인 행태, 정치규범, 정치 가치관
4. 계엄사태에서 나타난 사회구조적 문제
5. 양극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6. IMF 이후 경제적 불평등 증가, 양극화 형태로 발전

	1999	2016
상위 1%	8.5%	14.4%
상위 10%	32.8%	49.2%

7. 중산층 축소, 몰락

	1980년대	2010년대
객관적 중산층	70-75%	65%
체감 중산층	75-80%	40%

8. 중산층 내부분화, 부유 (특권적) 중산층 등장
9. 경제적 양극화 --> 사회적 양극화
10. 노동자 계층의 변화
11. 계층 이익을 대변할 계급조직의 부재, 대중의 atom 화
12.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 정치적 양극화
13. Media 지형변화 - 유튜브, SNS 역할
14. 반공 이데올로기의 역할
15. 포퓰리즘의 세계적 영향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

1.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극복
2.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발달
3.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관 필요

‘common good’ (공동의 선, 사회 공동의 가치) 가 중요